

● 르 포 / 雙龍精油 溫山潤滑精油工場

오늘의 逆境을 딛고 밝은 來日을 指向하는 雙龍家族

金 乾 洽 (油協·弘報室長)

‘80年 5月, 하루 6만 배럴의 精油施設을 가동하기 시작한 雙龍은 81년 1월에 國內最初로 潤滑基油 제조부문을 稼動開始했다. 이는 全量 輸入에 의존하던 潤滑유기유의 國產代替를 意味하는 것이다. 또한 그 製造工程은 日本, 캐나다에 이어 世界에서 세번째의 成功的인 技術蓄積인 것이다.

『**돌** 이켜 보면 우리 雙龍精油가 설립된지도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굳은 意志 속에서 國內 최초의 潤滑基油공장건설을 성공리에 마치고 商業稼動에 들어간지도 이제 1년 반이 넘어갑니다. 기술축적이란 전혀 없는 황무지에서 國內 최초의 潤滑基油공장건설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우리 雙龍精油의 모든 任職員은 「해내야만 한다」는 투철한 使命感과 불굴의 의지로 이 국가적인 대과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慶南蔚州群溫山面山岩里360- 溫山灣을 바라보며 40万坪 대지위에 서 있는 雙龍精油공장의 우람한 모습을 보면, 李承源사장의 회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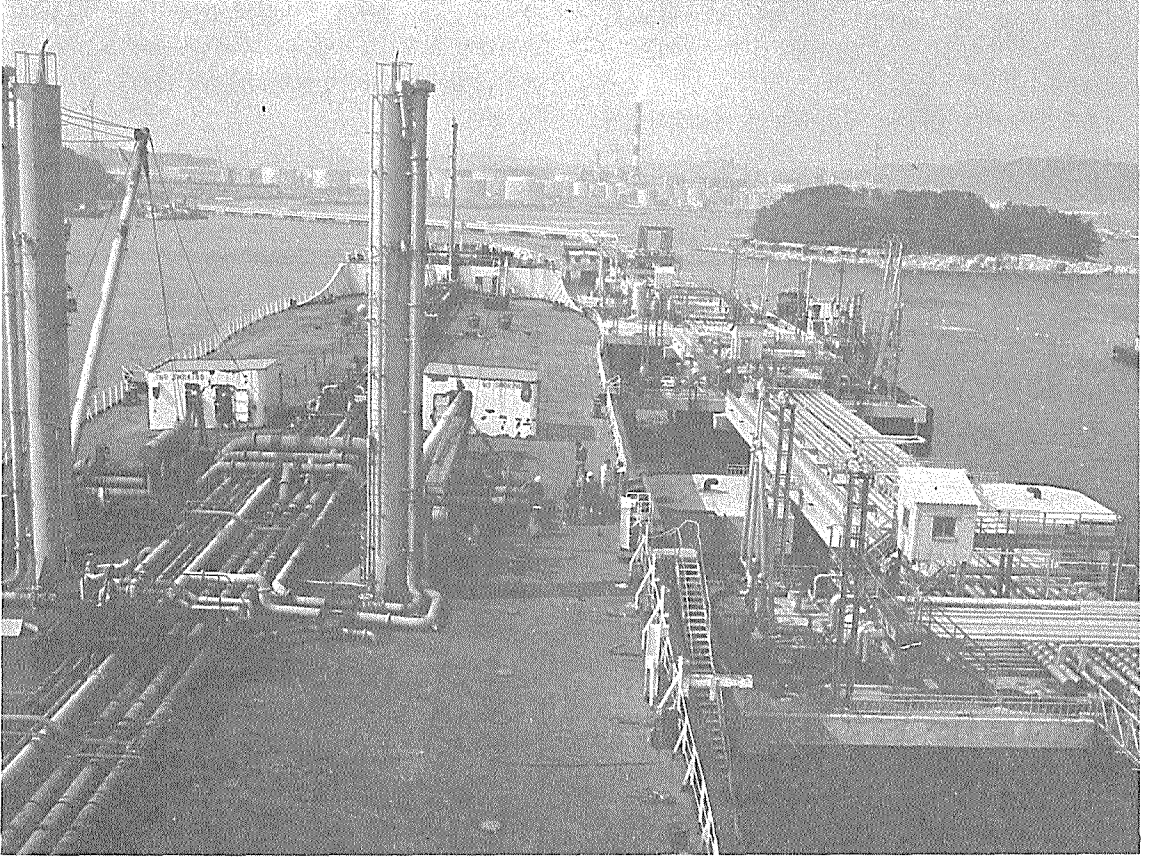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한가롭기만 하던 이 어촌에 國內 최초의 潤滑精油工場이 웅자를 드러낸 것은 80년 중반-。그러니까 雙龍精油는 우리나라 精油産業의 막내동이 走者인 셈이다.

雙龍洋灰를 모체로 하여 종합무역, 해운, 제지, 보험, 교육, 언론 등 국민의 기업으로 자라온 雙龍그룹이 精油産業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73년 第1次 石油危機 이후 몰아닥친 資源내셔널리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의 안정적 確保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는 原油 적거래 및 供給先의 다변화라는 정부시책에 이어져 第4次 經濟開發 5年計劃속의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雙龍洋灰는 약 2년여의 교섭 끝에 國內 최초로 이란의 國營 이란石油公社(NIOC)와 50대50의 合作으로 장기원유공급계약 아래 76년 1월 6일 韓國·이란石油株式會社를 설립하고 溫山潤滑精油工場 건설에 착수했다. 이는 第1次 石油危機 이후 세계 석유산업사상 產油國과의 합작투자공장이 소비국에 건설된 唯一한 例가 되었다.

金 鮮東常務는 合作초기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이란과 合作會社를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 유조선이 접안돼 있는 雙龍精油 전용해상부두

따랐지요. NIOC가 국영 石油会社로서 産油国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비해 우리 쪽은 순수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상대국가의 投資資本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단을 마련하여 주는 문제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雙龍이 이 合作精油工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雙

雙龍精油의 設立은 제1차 石油危機 이후 세계 석유산업사상 産油国과의 合作공장이 消費国에 건설된 唯一한 例가 되었다.

龍이 국내 민간기업중에서 최대의 産業用 油類 및 潤滑油 消費 企業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항상 국가기간 산업에의 참여를 통한 報國이라는 33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雙龍의 企業理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9년 이란革命 후 해외투자자본을 철수한다는 회교혁명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 NIOC가 철수하게 되자 雙龍洋灰는 이란측 소유株式 전부를 인수하여 총자본금 1백65억원으로 순수민족자본의 雙龍精油로 새출범을 하게 되었다.

技術蓄積이 전혀 없는 황무지 속에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80년 5월 6일 日産 6만배럴의 정유부문을 성공리에 정상가동하였으며, 81년 1월 6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日産 3천3백20배럴의 潤滑基油 제조부문도 상업가동을 개시했다.

사실 雙龍精油의 溫山공장은 그 「潤滑精油工場」이란 이름부터가 이채롭다.

73년 第1次 石油危機 이후 原油가 풍부하고 값싼 상품에서 귀중한 資源으로 바뀜에 따라 정유공장도 단순정제의 物量위주보다는 주어진 物量에서 보다 높은 부가 가치를 추구해야겠다는 판단에서 雙龍은 당시 全量 輸入에 의존하던 潤滑유기유의 國産代替를 위한 潤滑유기유 제조시설을 추가한 것이다.

潤滑基油란 쉽게 말하면, 고급윤활유의 원료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모든 金屬을 재료로 하는

기계의 움직이는 部品表面이 마찰될 때 생기는 마모나 마찰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潤滑油의 1차 목적으로 보면 되겠다.

세계적인 추세인 品質의 고급화에 따라 原油중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潤滑유분이 있으나 점차로 潤滑油 생산이 쉬운 原油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天然의 원유질에 의존하기 보다는 요구하는 품질로 개량할 수 있는 세계 최선의 潤滑油基油 제조기술을 美國의 殼牌社로부터 도입하여 제조시설을 건설했다. 이 工程은 日本,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의 성공적인 기술축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설은 고도의 技術集約 및 資本集約的인 설비로서 하루 생산능력 3천3백20배럴(1日 국내소비량 약 2천3백배럴)의 潤滑油基油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무려 5백8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年間 輸入代替 효과는 7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玉 內 유일의 潤滑油基油 전문메이커인 雙龍精油는 潤滑유기유 제조시설 이외에 하루 원유정제 능력 6만배럴의 정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雙龍측은 이 정유시설이 하루 최대 9만배럴, 즉 7만2천드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 공장은 최선의 생산공정시설과 완벽에 가까운 公害방지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기름에 있어서 公害 如否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황의 함량치에 따른다. 국내 정유회사중 최선의 설비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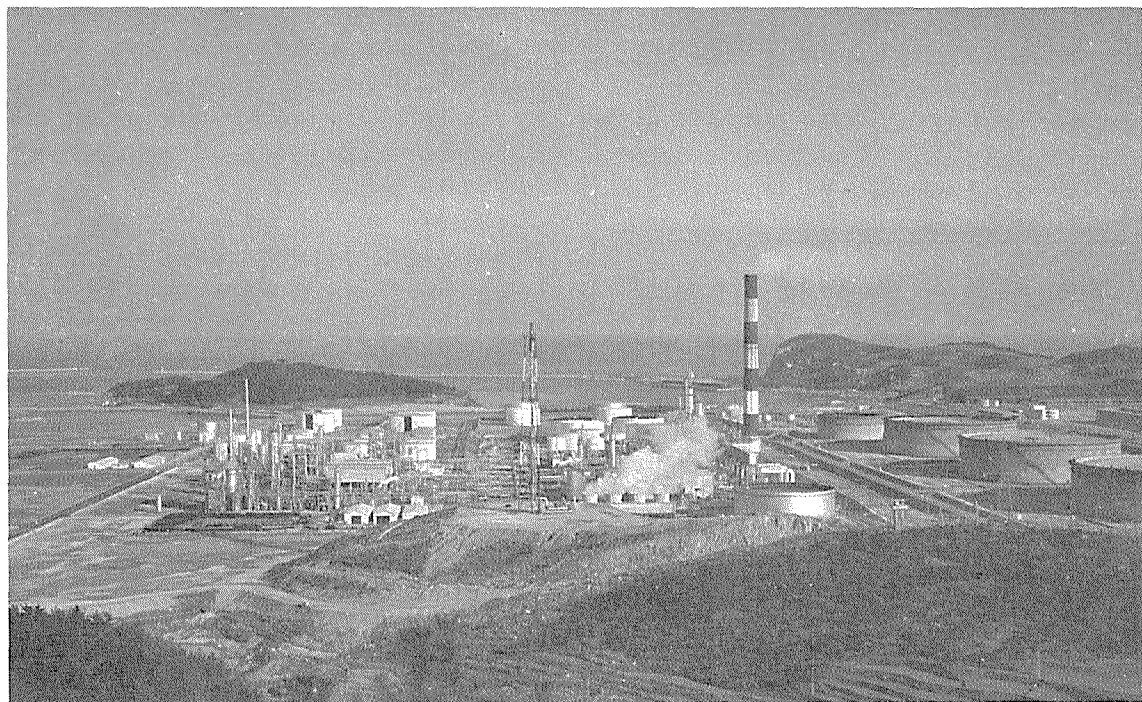
추고 있는 이 공장의 유황분 제거탈황시설은 우리나라 유황함량 최대허용치인 1%의 절반도 안되는 0.4% 이하의 低硫黃 輕油와 0.005% 이하의 燈油를 생산해 내고 있다.

또한 최신 폐수처리시설로 공장이나 유조선에서 나오는 廢油가 섞인 더러운 물을 한데 모아 비중차에 의해 油分을 분리시키고, 다시 포말부상장치등 3단계 폐

雙龍은 1·2차 石油危機의 와중에서 出帆하여 높은 建設單價와 換差損의 부담등 어려운 條件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新設 精油會社에 대한 實質的인 育成方案을 制度的으로 강구하는 支援對策이 아쉬운 것이다.

수처리시설을 통해 투명한 맑은 물로 만든 후 방류하고 있다. 공장 앞바다에서는 아직도 어민들이 굴양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폐수에 의한 오염은 없는 듯했다.

雙龍精油가 정제하는 原油는 주로 中東產 原油로서 수송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原油 1백80만 배럴을 적재하는 25만톤급 유조선을 주로 이용한다. 中東을 떠나 溫山 앞바다에 도착한 유조선은 SBM(原油



◇ 쌍용윤활정유공장 全景

하역해상계류시설)에 연결되어 직경 42인치, 길이 3km의 해저송유관과 2.5km의 육상송유관을 통해 원유저장탱크로 보내진다. 이 SBM은 시간당 5만5천 배럴, 즉 4만4천드럼의 原油를 하역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원유하역장치로 25만톤급 대형 유조선의 原油를 30시간 이내에 하역할 수 있다고 한다.

原油저장시설은 75만 배럴의 대형 탱크를 비롯하여 제품저장시설까지 포함해서 00日分の 비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75만 배럴 大型 탱크 1基의 크기는 장충체육관의 1.5배에 해당되니까 그 크기를 가히 짐작할 만 하다.

그러나 後發企業으로서 雙龍精油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雙龍精油는 신설정유사이기 때문에 경영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고정비용 및 금융비용으로 精製費가 높을뿐 아니라 後發企業으로서의 판매망구축과 정상적인 가동율 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雙龍精油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低硫黃 연료인 등유와 경유를 비롯하여 벵커 C油 등 全연료유제품에 대한 全社의인 판매촉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雙龍精油는 공급붐케도 국내 경제여건이 가장 어려운 상황하에서 출발하게 되어 아직도 경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雙龍精油의 국내 정유 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밑돌고 있으며, 판매망의 버려미터인 주유소수도 44개(油公 7백84개, 湖油 5

백34개, 京仁 1백30개, 極東 1개)에 머물고 있다.

『첫 출범을 했던 80년에는 근래에 없었던 세계적不況속에서 우리나라도 前例없는 마이너스成長을 보였고, 극심한 경기침체와 국내유류수요의 격감에다 세계적인 高金利와 폭발적인 환율상승등 첫 영업개시를 한 신설 精油会社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여건이었지요. 80年의 逆境은 81년에도 호전의 계기가 없이 계속되었고, 이제 油類소비는 성수기에 접어들기는 하였으나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李사장의 설명은 현재 雙龍精油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함축있게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雙龍精油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아쉬워 하고 있다.

雙龍은 1.2차 石油危機의 와중에서 출범하여 높은 건설단가와 감가상각 및 換差損의 부담등 어려운 여건을 수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며 신설 정유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방안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雙龍의 어려움은 어느 한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정유업체가 다같이 안고 있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雙龍은 오늘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보다 밝은 來日을 창조하기 위해 전직원이 힘차게 뛰고 있다.*



◇ 25만톤급 原油船과 하역용 해상계류시설(시간당5만5천배럴 하역)